

여성장애인에 대한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각장애 여성과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

전용수* · 김장순 · 박천만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연구배경:

현대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보건학계에서도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는 추세이며, 많은 학자들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차별구조 속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긴장은 증가되며 반복되는 실패 경험 때문에 행동이 소극적, 퇴행적으로 되기 쉽다. 또한 사회적 불이익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장애인들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차별, 사회활동의 참여 제한, 인적자원의 축소 등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이는 우울증과도 연결되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인여성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용교육프로그램 실시하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관 중 청각장애인 복지관과 정신장애인 복지관 각 1개소를 편의 추출하였다. 이 복지관에 등록된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한 35명을 1차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8주간의 교육에 참여한 17명(청각장애인 10명, 정신장애인 7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은 차호연(2006)등의 미용대학의 교과 과정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장애인들에게 맞게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제1주에 전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피부관리하기, 제2주 손 관리 및 실습, 제3주 발 건강 관리 및 실습, 제4주 화장 이론 및 실습, 제5주 헤어스타일 연출 및 모발관리하기, 제6주 이미지메이킹 이론 및 실습, 제7주 아로마를 이용한 건강관리법, 제8주 체형 관리 및 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1회 90분이었으며 청각장애복지관에서의 교육은 전문 수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용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신건강 전 부문에서 교육 전에 비해 향상을 보였다($p < 0.01$). 자아존중감의 세부항목인 개인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p < 0.01$), 자기효능감의 세부항목인 시행효능감, 수행효능감, 극복효능감의 모든 항목에서 미용교육프로그램 실시 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장애별로 미용교육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청각장애인에게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서 모두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지만($p < 0.01$) 정신장애인에게서는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아존중감에 관련하는 요인에는 장애급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에 관련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정신건강에 관련하는 요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피부상태가 좋을수록, 미용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실천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정신장애여성 2인을 제외한 모두가 '가끔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미용교육프로그램의 종료 1개월 후의 실천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4%가 교육내용을 실천하고 있었다.

결론:

성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미용교육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향상 및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미용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